

새로운 풍경과 만나는 충격의 세계 책의 상징을 찾아가는 어느 노시인의 여행

허만하 | 시인

해 인사 못미처 청량사라는 절이 있다. 해인사의 명성에 가려 찾는 발걸음이 거의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창건연대가 해인사보다 오랜 것으로 짐작되는 이 사찰의 탄생이 분명하지 않는 것도, 구름안개에 가렸다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하던 매화산(불가에서는 천불산이라 부른다) 날카로운 누런 바위 봉우리처럼 멋있다고 풍경을 찾아 동행하는 아내는 말한다. 대웅전 앞 3층 석탑과 석등을 바라보던 아내는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를 찾아 그 앞 석물을 살피고 있다. 그것은 거북 모양의 거대한 자연석에 용(龍)자를 새겨 넣고 그 획을 따라 자연수가 흐르도록 조각해 놓은, 뜻밖에 정교한 장치였다. 거북과 용처럼 자연과 인공이 어울리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찾는 코스로 우리는 성주를 지나 수륜면 백운동을 거치는 길의 풍치를 더 좋아하게 됐다. 낙동강을 건너 성주를 지날 때면 나는 으레 50년 전의 늦여름을 생각한다. 그때 대구중학교 6년생이던 나는 대구에서 군번도 없이 중군하게 돼 성주의 한 재를 넘어 조그마한 한 과수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무렵의 어느 날 성주의 한 고지를 공격하던 영국군이 미공군의 오폭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실이 신문에 보도됐던 모양이다. 이때 아버지는 소식이 끊긴 아들의 행방을 찾아 이 고지에서 엉덩이 주머니에 책을 꽂고 있는 전사자를 삼을 들고 찾아보겠다고 저녁 밥상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니 이야기를 1년 후의 느닷없는 귀가 때 들었던 일이 떠올랐다. “하야(나의 애칭)는 군복 주머니에도 책을 꽂고 있을테니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시야에 비친 중학생 나이의 내 이미지를 고희를 앞둔 이 나이에 되살려 보며 칩덩굴에 덮인 성주의 야산을 바라봤다.

나의 표상은 책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책을 너무 좋아했다. 아버지가 머리 속에서 그려봤던 그 한편의 책은 내가 읽었던 모든 책,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읽게 될 모든 책의 상징으로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학생 시절 출렁이던 모기장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읽었던 여름밤의 추리소설, 중학생 때 읽었던 두툼했던 파스퇴르의 전

기, 도서관 서가에서 만져봤던 책들(유카와 히데키의 《극미의 세계》가 문득 생각난다), 엉덩이 주머니에 꽂고 다녔던 누런 표지의 문고판, 의예과 때 읽었던 실존주의 작가들의 소설, 요즘 읽고 있는 《네 사람의 현상학적 철학자들》(루트레지)까지 포함하는 모든 책들,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앞으로 내가 만지게 될 책들 모두의 심볼을 아버지가 예언처럼 봤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백운동 비탈길에 접어들었다.

책읽기는 나들이와 같다. 일상을 떠나 새로운 풍경(경험)을 만나는 신선한 충격의 세계에 들어가는 즐거움이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 여행도 그렇거니와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독서도 어려움을 이기는 인내를 요구할 때가 많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읽어 내기란, 백암은천 동네 세그루 느티나무가 서 있는 소테리를 떠나 구주령 고개(우리는 골뱅이고개라 불렀다)를 넘어 영양에 이르기보다 더 힘들다. 명나라의 동기창(董其昌)이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감”(讀萬卷書 行萬里路)으로써 가슴 속의 먼지를 씻어내고 ‘기운생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여행을 하고 책을 읽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 그 뜻을 받아들여 가슴에 낀 때를 씻으려 힘쓰고 있다.

위에서 말한 동기창과 거의 같은 말을 한 영국 시인이 있다는 사실을 책읽기에서 발견하고 가볍게 놀란 적이 있다. 그의 이름은 루퍼트 브루크(Rupert Brooke)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 타히티섬 여행에서 돌아와서(그는 고갱의 그림과 러시아의 발레를 좋아했다) 종군해 28세의 젊은 나이로 희랍의 스키로스섬에서 세상을 떠나 그 섬 언덕의 감람나무 밑에 묻힌 재기발랄한 시인이다. 19세 때 케임브리지에 입학했던 그는, 20세 때 “세상에는 세가지 좋은 일이 있다. 첫째는 시를 읽는 것, 둘째는 시를 쓰는 것, 세번째로 가장 좋은 일은 시를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25세 때부터 그의 여행이 시작됐다. 1913년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1천 마일을 걷고 싶다. 천의 시를 쓰고 싶다. 천잔의 맥주를 마시고 싶다.”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시를 살다간 시인이다.

프랑스에서 브루크의 시를 처음으로 주목했던 사람이 앙드레 지드다. 인도의 타고르, 스페인의 철학자 우나무노도 루퍼트 브루크회 회원이었다고 한다. 우나무노는 브루크의 “내 죽는다면 나를 위해 다만 이 일만을 생각해주시를”(If I should die, think only this of me)이란 소네트를 특히 좋아했다고 한다. 동기창과 브루크의 우연한 일치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예술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 많다. 책을 읽는 재미의 하나는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것 사이에 숨어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발견의 재미다. 그것은 황홀한 지적 게임이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관계의 하나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메를로-퐁티와 일본의 니시다 키타로(西田 幾太郎)의 예다. 나와 교분이 있는 일본 시인의 안내로 교토를 방문했을 때 그와 나는 ‘철학의 길’이라 일컫는, 도랑을 낀 고요한 산책로를 함께 걸었다. 니시다가 일본 고유의 철학을 위해 사색하며 걸었던 길이라 했다. 그의 《선(善)의 연구》를 몇 장 읽지만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그런 대로 감개가 있는 경험이었다.

약 20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하면 맑은 흐름(시내인데도)을 헤엄치고 있던 피라미와 한정(閑靜)했던 둘레 분위기가 떠오른다. 약 3년 전 이사를 할 때 2층 서고 장서의 상당한 부분(트럭 두대 분)을 눈물겹게 버렸는데도, 니시다의 《속·사색과 체험》이라는 산문집이 이곳까지 따라온 것은 그 좁은 산책로를 걸었던 인연일지도 모르겠다.

잊어버렸던 니시다가 근래 나의 독서 영역에 다시 부활한 것은 올헤아마존을 통해서 입수한 《Merleau-Ponty, Interiority and Exteriority, Psychic Life and the World》(SUNY Press, Albany, 1999)에 실려 있는

〈몸의 논리〉라는 글 대목 때문이다. 제7장인 이 글에 따르면, 후기 메를로-퐁티의 중심사상과 니시다 키타로의 그것이 현저하게 부합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45년 《지각의 현상학》과 《행동의 구조》로 박사학위를 받은 메를로-퐁티가 2차 대전이 끝난 같은 해에 별세한 일본의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글쓰기에 인용이 불가피해진다. 언어란 인용의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르헤스의 선구적 견해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텍스트는 인용의 모자이크로 구축돼 있다. 텍스트는 모두 또 하나의 다른 텍스트를 흡수 변형한 것이다”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문학이론(텍스트 상호 연관성의 이론, 즉 간텍스트성)도 수궁이 된다. 하나의 텍스트가 태어날 때 그 텍스트는 이미 있었거나 또는 공시적으로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메를로-퐁티와 니시다 두 사람의 철학에 유사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 포스트구조주의 문학비평의 바이블이라 일컫는 《구조주의의 시학》의 저자인 조나산 컬러의 말대로 “간텍스트성의 연구는 원천이나 영향을 조사하는 일이 아닌” 것이다.

독창성이라는 문학의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표현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의미 짓기가 상식의 겹칠 밑바닥에서 반란처럼 정착되고 있는 것을 배운 것도 근래 읽었던 책을 통해서다. 그 책은 50년 전의 어느 여름날 아버지가 애듯한 환영처럼 성주 교외 한 야산에 쓰러져 있는 아들 주머니에서 푹푹히 봤던 그 한권의 책에 수렴돼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그렇다면 나는 산자락까지 밀물지는 참외 비닐 하우스의 바다를 누비는 들길을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환영을 횡단한 셈이다.

청량사를 물러나면서 우리는 대웅전 바른 칸에서 푸른 가지를 조용히 흔들고 있던 흰칠하게 키가 큰 한그루 나무 이름을 한 보살에게 물었다.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이 산 속에 있으나 구름이 깊어 알 길이 없노라’(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행선지를 찾아 길을 떠났다. 물론 바로 이웃에 있는 해인사는 들르지 않았다. 가슴에 담았던 청량사의 고요한 분위기를 인파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쩐지 그날 청량사를 찾았던 사람은 우리 둘만이었다. 절 입구 국립공원 매표소마저 비어 있었다. 그날의 우리 책읽기는 숨어 있는 정결한 풍경과 길을 읽는 일이었다. ●